

<2021년도>

제5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③	②	②	③	⑤
6	7	8	9	10
①	②	②	⑤	⑤
11	12	13	14	15
①	②	④	⑤	③
16	17	18	19	20
⑤	①	③	①	③
21	22	23	24	25
②	③	①	⑤	②
26	27	28	29	30
③	③	⑤	②	④
31	32	33	34	35
⑤	①	④	④	④
36	37	38	39	40
⑤	①	①	③	④
41	42	43	44	45
③	④	④	②	⑤
46	47	48	49	50
②	⑤	⑤	③	②

01 -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이것은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 발굴된 이른 민무늬 토기입니다. 이 토기의 출토로 우리나라의 (가) 시대가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산리 유적에서는 화살촉, 갈돌, 갈판 등의 석기도 나왔습니다.



- ① 고인돌, 돌널무덤 등을 만들었다.
- ② 거푸집을 이용하여 청동검을 제작하였다.
- ③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여 식량을 생산하였다.
- ④ 주로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하였다.
- ⑤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써서 농사를 지었다.

정답> ③

'이것은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 발굴된 이른 민무늬 토기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토기의 출토로 우리나라의 (가) 시대가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산리 유적에서는 화살촉, 갈돌, 갈판 등의 석기도 나왔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신석기 시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어 식량을 생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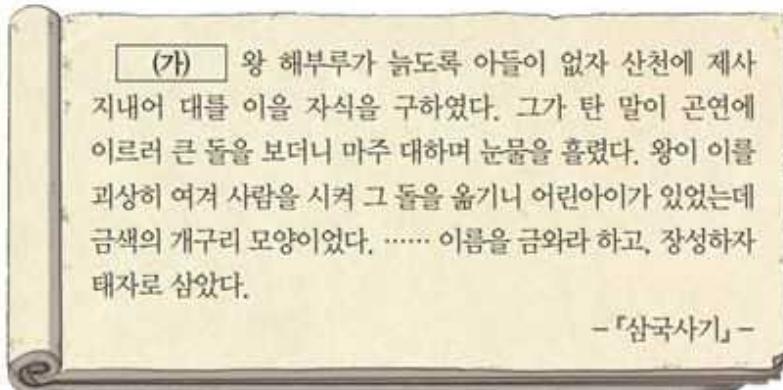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고인돌, 돌널무덤(석관묘) 등을 만든 것은 청동기 시대의 일이다.
- ② 거푸집을 이용하여 청동검을 제작한 것 역시 청동기 시대의 일이다.
- ④ 주로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한 것은 구석기 시대의 일이다.
- ⑤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써서 농사를 지은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참고로 이때 철제 무기도 만들어 사용하였다(이로써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로만 사용).

02 - 초기 국가, 부여

2.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혼인 풍습으로 서옥제가 있었다.
- ②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 ③ 정사암에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 ④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왜에 수출하였다.
- ⑤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하였다.

정답> ②

'(가) 왕 해부루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산천에 제사 지내어 대를 이을 자식을 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가 탄 말이 곤연에 이르러 큰 돌을 보더니 마주 대하여 눈물을 흘렸다. 왕이 이를 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옮기니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금색의 개구리 모양이었다. …… 이름을 금와라 하고,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여기서 해부루는 고구려의 동명성왕 설화에 등장하는 (동)부여의 (전설적인) 왕[시조]이고, (양자인) 금와는 해부루를 이어 (동)부여의 왕이 된 인물이다 (재위 기원전 60-기원전 24). 또 금와왕이 고구려의 시조 주몽 (재위 기원전 37-기원전 19)의 어머니 유화(柳花)를 거두었고, 주몽도 키웠다.

초기 국가, 부여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오답 해설>

- ① 혼인 풍습으로 서옥제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고구려이다.
- ③ 정사암에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한 나라는 백제이다(정사암 회의, 천정대와 호암사지에서 열림).
- ④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왜에 수출한 나라는 변한[가야]이다.
- ⑤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하였던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이다.

03 - 고구려 소수림왕의 업적

3.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 ②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 ③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④ 연가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⑤ 신라에 군대를 파견하여 왜를 격퇴하였다.

정답> ②

'삼국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제목 아래 고구려의 (가)의 업적으로 '불교 수용'과 '전진에 사신 파견'이 제시되어 있다. 이어 백제 고이왕과 신라 법흥왕의 업적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고구려의 제17대 왕인 소수림왕(재위 371-384)임을 알 수 있다(불교 수용은 재위 2년인 3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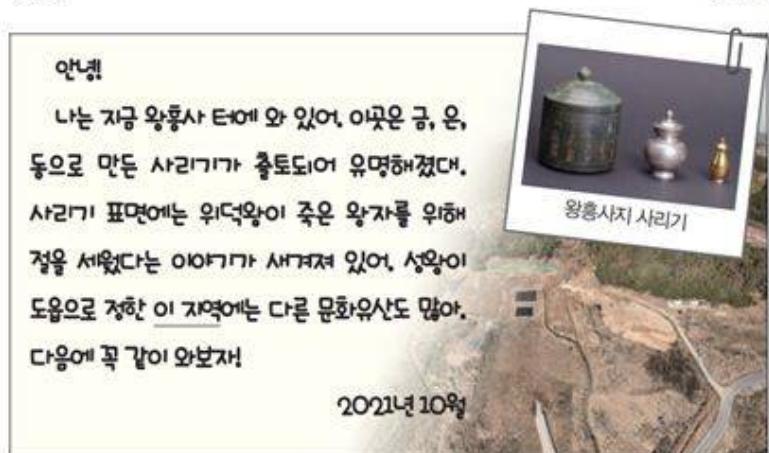
소수림왕은 재위 2년인 372년에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참고로 재위 3년인 373년에는 율령을 반포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고구려의 왕은 장수왕(재위 413-491, 제20대)이다(427, 장수왕 15).
- ③ (압록강 하류 지역인)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한 고구려의 왕은 미천왕(재위 300-331, 제15대)이다(311, 미천왕 12).
- ④ 연가(延嘉)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고구려의 왕은 안원왕으로 추정된다(539, 안원왕 9).
- ⑤ 신라에 군대를 파견하여 왜를 격퇴한 고구려의 왕은 광개토대왕(재위 391-413, 제19대)이다(400, 광개토 대왕(영락) 10).

04 - 충남 부여의 문화유산

4. 밑줄 그은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정답> ③

'안녕! 나는 지금 왕흥사 터에 와 있어. 이곳은 금, 은, 동으로 만든 사리기*가 출토되어 유명해졌대'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사리기 표면에는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 절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새겨져 있어. 성왕이 도읍으로 정한 이 지역에는 다른 문화유산도 많아. 다음에 꼭 같이 와보자!'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지역'은 '사비' 즉 지금의 충남 부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538, 백제 성왕 16). 위덕왕은 백제의 제27대 왕(재위 554-598)으로,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백제 성왕의 아들이다. 참고로 2015년에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 전북 익산시에 분포하는 삼국 시대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사리기(舍利器): 참된 불도 수행의 결과로 생긴다는 구슬 모양의 유골인 사리(舍利)를 모셔놓은 그릇이다. 사리병이나 사리함, 사리호 등의 용기를 가리킨다.

관촉사 석조[은진] 미륵보살 입상이 있는 곳은 충남 논산이다(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오답 해설>

- ① 백제의 부여 정림사지 오층 석탑이다(7세기). 국보 제9호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백제의 대표적인 탑으로 꼽히고 있다.
- ② 능산리 고분군은 충남 부여에 위치한 백제 후기의 고분들이다(사적 제14호). 2021년 9월 17일자로 능산리 고분군에서 '부여 왕릉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④ (사비의 왕궁지인) 관북리 유적 역시 충남 부여에 위치한다(사적 제428호).
- ⑤ (사비의 산성인) 부소산성 역시 충남 부여에 위치한다(사적 제5호).

05 - 고구려 부흥 운동

5.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왕은 당과 신라 군사들이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 계백에게 결사대 5천 명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가서 신라 군사와 싸우게 하였다. 계백은 4번 싸워서 모두 이겼으나 군사가 적고 힘이 모자라서 마침내 패하였다.

(나) 사찬 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설인귀와 싸웠는데 연이어 패하였다. 그러나 이후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4천여 명을 죽였다.

- ① 김흠돌이 반란을 피하다 처형되었다.
- ②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 ③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크게 물리쳤다.
- ④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건국하였다.
- ⑤ 겸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⑤

(가)에 '왕은 당과 신라 군사들이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 계백에게 결사대 5천 명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가서 신라 군사와 싸우게 하였다. 계백은 4번 싸워서 모두 이겼으나 군사가 적고 힘이 모자라서 마침내 패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백제 계백 장군(?~660)이 신라군과 싸운 황산벌 전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660.7).

(나)에는 '사찬 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설인귀(613~683)와 싸웠는데 연이어 패하였다. 그러나 이후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4천여 명을 죽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신라군이 당의 설인귀와 싸운 기벌포 전투[해전]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676.11).

겸모잠(?~670)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황해도 한성(지금의 재령)에서] 부흥 운동을 전개한 것은 670년의 일이다(고구려 부흥 운동). 참고로 겸모잠은 당의 정벌대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안승에게 피살되었다.

오답 해설>

- ① 김흠돌(?~681)이 반란을 피하다 처형된 것은 (통일) 신라 신문왕 원년인 681년의 일이다.
- ②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을 함락시킨 것은 재위 2년인 642년의 일이다.
- ③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크게 물리친 것은 고구려 영양왕 23년인 612년의 일이다(수의 2차 침입 시).
- ④ 대조영(재위 698-719, 고왕)이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건국한 것은 698년의 일이다(발해 고왕 원년).

06 - 천문 관련 자료

6.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정답> ①

'하늘에 길을 묻다 천문(天文)*'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 선조들은 하늘의 움직임이 세상의 이치와 연결된다고 생각해 천문 현상을 면밀히 관측하였습니다. 덕흥리 고분의 별자리 벽화는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제시된 자료에는 고구려 고분인 '오헌분'과 경주의 '첨성대'도 나와 있다. 따라서 천문과 관련된 자료가 전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천문(天文): 천체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으로, 천문학의 준말이기도 하다. 우주와 천체의 온갖 현상과 그에 내재된 법칙성 따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킨다.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데 사용하던 재래식 기계이다.

오답 해설>

② (양산 통도사) 금동 천문도는 조선 효종 대에 만들어진 천문기구이다(1652, 효종 3). 즉 천문 관측을 위해 별자리를 동제 원판에 정교하게 새긴 천문도이다(보물 제1373호).

③ 혼천의는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던 천문관측기이다 (천문시계). 혼의, 혼의기, 선기옥형이라고도 한다.

④ 칠정산 내편은 이순지와 김당 등이 편찬에 참여한 역법서이다 (1444, 세종 26).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을 교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역법서이자 원의 수시력에 대한 해설서이기도 하다.

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조선 태조 대에 만들어진 돌에 새긴 천문도이다(1395, 태조 4).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조선의 하늘 모습을 그려 넣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되었다(국보 제228호).

07 - 원효와 의상

7. (가), (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가) -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백련 결사를 이끌었다.
- ② (가) -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 ③ (나) - 불교 교단을 통합하기 위해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 ④ (나) -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 ⑤ (가), (나) - 심성 도야를 강조한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정답> ②

'홀로그램으로 만나는 역사 인물'이라는 제목 아래 왼쪽 (가)의 말풍선에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 영주에 부석사를 세우고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습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통일) 신라 시대의 고승, 원묘국사 의상(625~702)임을 알 수 있다(부석사를 세운 것은 문무왕 16년인 676년). 이어 오른쪽 (나)의 말풍선에는 '무애가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게 되었지요'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나)' 역시 (통일) 신라 시대의 고승, 화쟁국사 원효(617~680)임을 알 수 있다.

의상은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668, 문무왕 8).

오답 해설>

①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백련 결사를 이끈 인물은 고려의 원묘국사 요세(1163~1245)이다.

③ 불교 교단을 통합하기 위해 천태종을 개창한 인물은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다(1097, 숙종 2).

④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구법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한 인물은 (통일) 신라의 고승, 혜초(704~787)이다(727, 성덕왕 26).

⑤ 심성 도야를 강조한 유불 일치설을 주장한 인물은 고려의 진각국사 혜심(1178~1234)이다.

08 - (통일) 신라(군사 조직, 상수리 제도)

8. 지도와 같이 행정 구역을 정비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기>

- ㄱ.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다.
- ㄴ. 욕살, 처려근지 등을 지방관으로 파견하였다.
- ㄷ.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 ㄹ. 북계에 병마사를 파견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북원경, 금관경 '5소경'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지방 행정 구역을 (9주) 5소경으로 정비한 국가는 (통일) 신라이다(685, 신문왕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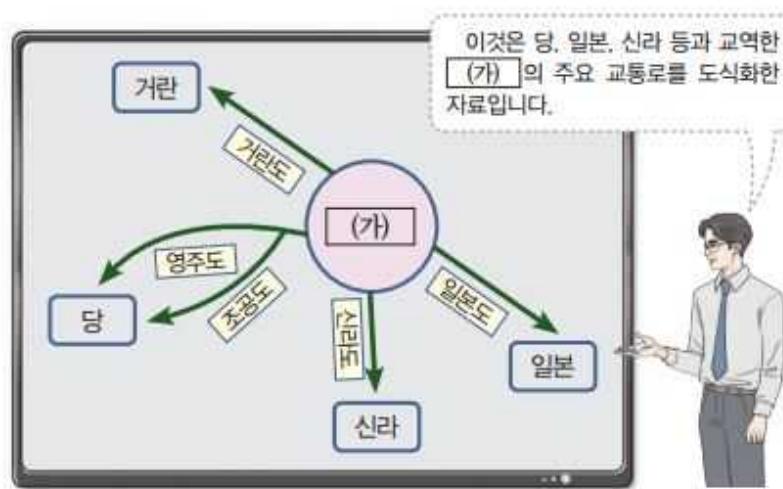
- ㄱ.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다[각 687(신문왕 7)/685(신문왕 5)]. 옳은 설명이다.
- ㄴ. (지방의 여러 성에) 욕살, 처려근지 등을 지방관(지방 장관)으로 파견한 국가는 고구려이다.
- ㄷ.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상수리 제도는 신라의 중앙 정부가 지방 세력을 통제[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지방 세력의 자제들 중 한 명을 일종의 볼모로 중앙에 머물게 한 제도이다(5세기 이전부터 실시 추정). 고려의 기인 제도, 조선의 경저리 제도로 이어졌다.
- ㄹ. (동계와) 북계에 병마사를 파견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한 국가는 고려이다.

이상에서 옳은 설명은, 'ㄱ과 ㄷ'이다.

09 - 발해(벽돌무덤)

9.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하였다.
- ② 후연을 격파하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 ③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하였다.
- ④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 해상 무역을 장악하였다.
- ⑤ 고구려와 당의 양식이 혼합된 벽돌무덤을 만들었다.

정답> ⑤

'이것은 당, 일본, 신라 등과 교역한 (가)의 주요 교통로를 도식화한 자료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시된 그림에는 (가)를 중심으로 거란과는 '거란도'가 당과는 '영주도'와 '조공도'가, 신라와는 '신라도'가, 일본과는 '일본도'가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발해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발해의 용두산 고분군에 있는 정효 공주 묘는 고구려와 당의 양식이 혼합된 벽돌무덤이다.

오답 해설>

- ①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한 국가는 고려이다(921, 태조 4).
- ② 후연을 격파하고 백제를 공격한 국가는 고구려(광개토 대왕)이다(백제를 공격한 것은 주로 390년대, 특히 396년이 대표적이고, 후연을 격파한 것은 주로 400년대의 일).
- ③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한 국가는 백제(무령왕)이다(6세기 초).
- ④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 해상 무역을 장악한 국가는 (통일) 신라이다[828(흥덕왕 3)~851(문성왕 13)].

10 - 고려 시대의 경제 상황

10.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어요.
- ②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어요.
- ③ 고구마, 감자 등의 구황 작물을 재배하였어요.
- ④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계해약조를 체결하였어요.
- ⑤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어요.

정답> ⑤

'지도와 같이 13곳의 조창에 조세를 모았다가 개경의 경창 등으로 조운하였던 시기의 경제 상황을 말해 볼까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주어진 지도에는 13곳의 조창이 명칭과 함께 표시되어 있다. '개경의 경창' 등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이는 고려 시대의 조운로를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려 시대에는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한 것은 신문왕 대의 일이다 [각 687(신문왕 7)/689(신문왕 9)].
- ②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③ 고구마, 감자 등의 구황 작물을 재배한 것 역시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④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계해약조를 체결한 것은 조선 세종 25년인 1443년의 일이다. 계해약조는 조선이 쓰시마 도주와 맷은 세견선 등 무역에 관한 조약으로, 1426년(세종 8)에 있었던 3포의 개항을 비롯한 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맺은 조약이다.

11 - 강화도의 역사적 사실

11.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대몽 항쟁기에 조성된 왕릉을 조사한다.
- ② 김만덕의 빈민 구제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 ③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곳을 검색한다.
- ④ 지증왕이 이사부를 보내 복속한 지역과 부속 도서를 찾아본다.
- ⑤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하여 영국군이 점령한 장소를 살펴본다.

정답> 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로 떠나요!'라는 제목 아래 '고인돌', '참성단', '광성보'가 사진과 함께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는 강화도를 가리킬 수 있다. 강화도에는 고려 제23대 왕인 고종(재위 1213~1259)의 능인 홍릉이 있다(사적 제224호).

오답 해설>

- ② 김만덕(1739~1812)이 빈민 구제 활동을 펼친 곳은 제주도이다.
- ③ 정약전(1758~1816)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곳은 흑산도(지금의 전남 신안군에 따린 섬)이다(1814, 조선 순조 14)
- ④ 지증왕이 이사부(?~?)를 보내 복속한 지역과 부속 도서는 울릉도와 독도(이상 우산국)이다(512, 신라 지증왕 13).
- ⑤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하여 영국군이 점령한 장소는 거문도이다(1885.4~1887.2).

12 - 후고구려(광평성)

12.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각간 대공이 반란을 일으켰다.
- ② 광평성 등의 정치 기구를 두었다.
- ③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 ④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군과 싸워 승리하였다.
- ⑤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제도를 갖추었다.

정답> ②

왼쪽 말풍선에 '얼마 전 강원도 철원에 다녀오셨지요?'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네! 궁예가 세운 (가)의 도성 터를 현장 조사하고 왔습니다. 화면과 같이 도성 터는 비무장지대에 있어 현재는 발굴 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대한 남북 공동 연구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는 답변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후고구려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후고구려는 (최고 중앙 관서인) 광평성 등의 정치 기구를 두었다 (904).

오답 해설>

- ① 각간 대공(大恭)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통일) 신라 혜공왕 4년인 768년의 일이다(『삼국사기』). 일길찬(一吉浪)의 관등에 있던 대공(?~768)과 그의 아우 아찬(阿漁) 대렴이 무리를 모아 난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96각간(角干)이 왕궁파(친왕파)와 김대공파(반왕파)로 나뉘어 왕권을 놓고 싸운 이른바 '96각간의 난'이 이어졌다. 참고로 각간(角干)은 본래 신라의 최고 관등인 이벌찬(伊伐漁)을 지칭하는 용어이므로 96각간은 각간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 난을 일으킨 귀족과 진압한 귀족 전체를 포함하여 일컫는 말이다.
- ③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파견한 국가는 후백제이다.
- ④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군과 싸워 승리한 국가는 고려이다 (930). 고창은 지금의 경북 안동 지역이다.
- ⑤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제도를 갖춘 국가는 발해이다(발해 선왕 대인 9세기 전반).

13 - 거란의 침입과 격퇴

13.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옮겨 나열한 것은?

[3점]

(가) 양규가 무로대에서 거란군을 습격하여 2천여 명을 죽이고, 포로가 되었던 남녀 3천여 명을 되찾았다.

(나) 거란이 장차 침입하려 하므로 군사 30만 명을 선발하여 광군이라 부르고 광군사를 설치하였다.

(다) 왕이 소손녕의 봉산군 공격 소식을 듣고 서희를 보내 화의를 요청하니 소손녕이 침공을 중지하였다.

(라) 강감찬 등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맞아 싸웠다. 고려군이 맹렬하게 공격하니 거란군이 북으로 도망쳤다.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나) - (가) - (라) - (다) ④ (나) - (다) - (가) - (라)

⑤ (다) - (라) - (나) - (가)

정답> ④

(가)에 '양규가 무로대에서 거란군을 습격하여 2천여 명을 죽이고, 포로가 되었던 남녀 3천여 명을 되찾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거란의 제2차 침입 시의 일이다(1010, 현종 원년).

(나)에는 '거란이 장차 침입하려 하므로 군사 30만 명을 선발하여 광군이라 부르고 광군사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 정종 2년인 947년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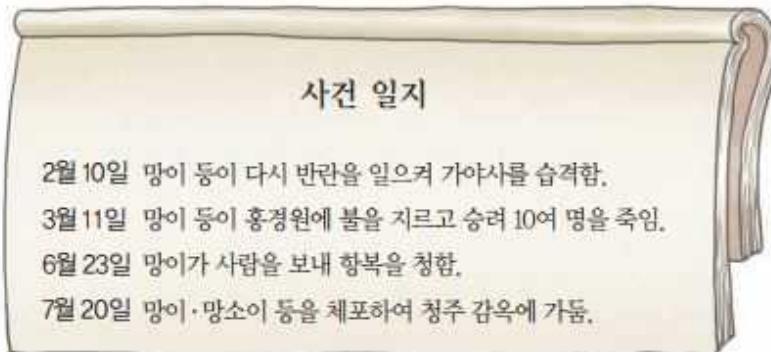
(다)에는 '왕이 소손녕의 봉산군 공격 소식을 듣고 서희를 보내 화의를 요청하니 소손녕이 침공을 중지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거란의 제1차 침입 시의 일이다(993, 성종 12).

(라)에는 '강감찬 등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맞아 싸웠다. 고려군이 맹렬하게 공격하니 거란군이 북으로 도망쳤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거란의 제3차 침입 시에 있었던 귀주 대첩을 가리킨다(1019, 현종 10).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다)-(가)-(라)'가 된다.

14 - 고려 시대의 사회 모습

14. 다음 사건이 전개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서얼이 통청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 ③ 적장자 위주의 상속 제도가 확립되었다.
- ④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 ⑤ 특수 행정 구역인 소의 주민들이 차별을 받았다.

정답> ⑤

'사건 일지'라는 제목 아래 2월 10일에 '망이 등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 가야사를 습격함'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3월 11일에 '망이 등이 흥경원에 불을 지르고 승려 10여 명을 죽임', 6월 23일에 '망이가 사람을 보내 항복을 청함'이, 마지막으로 7월 20일에 '망이·망소이 등을 체포하여 청주 감옥에 가둠'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사건은 고려 명종 6년인 1176년에 일어난 공주 명학소의 망이·망소이의 난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공주 명학소의 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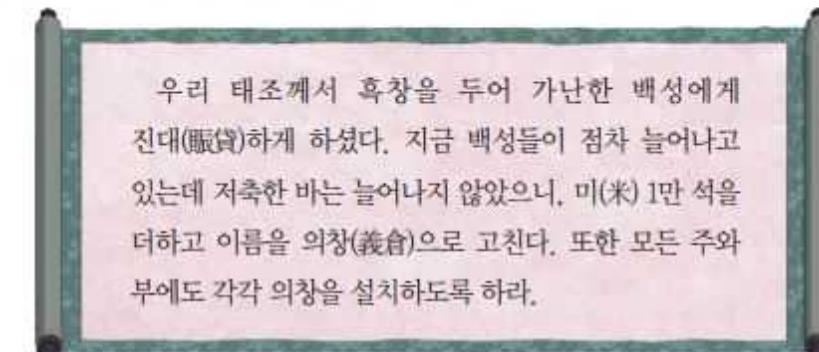
고려 시대에 특수 행정 구역으로 향·소·부곡이 있었으며, 여기에 거주한 주민들은 차별을 받았다.

오답 해설>

- ① 서얼이 (청요직) 통청 운동을 전개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결국 철종 2년인 1851년에 신해허통이 이루어져 서얼들의 관직 진출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는 철폐되었다.
- ②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지금의 경북 상주)에서 봉기한 것은 (통일) 신라 진성 여왕 3년인 889년의 일이다
- ③ 적장자 위주의 상속 제도가 확립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④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던 것은 초기 국가, 동예이다.

15 - 고려 성종의 정책

15. 다음 교서를 내린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 ②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하였다.
- ③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④ 인사 행정을 담당하던 정방을 폐지하였다.
- ⑤ 개경에 귀법사를 세우고 균여를 주지로 삼았다.

정답> ③

'우리 태조께서 흑창을 두어 가난한 백성에게 진대(賑貸)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지금 백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저축한 바는 늘어나지 않았으니, 미(米) 1만 석을 더하고 이름을 의창(義倉)으로 고친다. 또한 모든 주와 부에도 각각 의창을 설치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흑창을 확대하여 의창이 만들어진 것은 고려 성종 5년인 986년의 일이다.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것은 고려 성종 2년인 983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한양이 (양주목에서) 남경으로 승격된 것은 고려 문종 21년인 1067년의 일이다(유수관을 둠).
- ②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한 것은 고려 숙종 5년인 1101년의 일이다.
- ④ 인사 행정을 담당하던 정방이 (최종적으로) 폐지된 것은 고려 창왕 즉위년인 1388년의 일이다. 사실 정방은 충선왕과 충목왕, 공민왕 때도 폐지되었다가 다시 설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참고로 정방이 무신 집권자인 최우에 의해 처음 설치된 것은 고려 고종 12년인 1225년의 일이다.
- ⑤ 개경에 귀법사를 세우고 균여(923~973)를 주지로 삼은 것은 고려 광종 14년인 963년의 일이다.

16 -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

16. 다음 구성안의 소재가 된 탑으로 옳은 것은?

[1점]

○○ 박물관 실감 콘텐츠 구성안	
제목	오늘, 탑을 만나다
기획 의도	증강 현실(AR)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실감나게 체험하는 기회 제공
대상 유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의 영향을 받아 대리석으로 만든 석탑 원각사지 십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음
체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탑을 쌓으며 각 층의 구조 파악하기 기단부에 조각된 서유기 이야기를 퀴즈로 풀기



정답> ⑤

'○○박물관 실감 콘텐츠 구성안'이라는 제목 아래 대상 유물 특징으로 '원의 영향을 받아 대리석으로 만든 석탑'이라는 점과 '원각사지 십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음'이라는 점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어 체험 내용으로 '탑을 쌓으며 각 층의 구조 파악하기'와 '기단부에 조각된 서유기 이야기를 퀴즈로 풀기'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구성안의 소재가 될 탑은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임을 알 수 있다. 국보 제86호이다.

오답 해설>

① 경주 불국사 삼층 석탑, 즉 석가탑이다(751, 경덕왕 10). 국보 제21호이다.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세우고, 그 위에 상륜부를 조성한 통일 신라의 전형적인 석탑 양식을 보여준다. 도굴로 손상된 탑을 보수하던 중 내부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되었다.

②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 석탑이다(통일 신라 시대에 조성). 국보 제35호이다. 이중 기단과 탑신 사이에 연화좌 위에 앉아 있는 네 마리의 사자를 배치하였다. 중앙에 인물상이 있으나 탑신 덮개돌의 아랫면에는 닿아 있지 않다. 네 마리의 사자는 암수로 각각 두 마리씩 표현하였으며 모습도 제각각 다르다.

③ 양양 진전사지 삼층 석탑이다(8세기 후반 추정). 국보 제122호이다.

④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이다. 송의 영향을 받은 고려의 (다각다층형) 석탑으로, 국보 제48-1호로 지정되었다.

17 - 익재 이제현

17. 밑줄 그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그리운 벗에게
연경에 도착해 이제야 소식을 전하네.
예전에 충선왕이 원의 화가를 불러
그리게 한 나의 초상을 기억하는가?
잃어버렸던 그 그림을 오늘 찾았더니.
그림을 보니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함께 공부하던 나의 젊은 시절이 생각
난다네. 혼탁한 세상 편치만은 않지만
곧 개경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네.

영원한 벗, 익재

- ① 역사서인 사력을 저술하였다.
- ②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 ③ 9재 학당을 세워 유학 교육에 힘썼다.
- ④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하였다.
- ⑤ 예안 향약을 시행하여 향촌 교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정답> ①

'그리운 벗에게. 연경에 도착해 이제야 소식을 전하네. 예전에 충선왕이 원의 화가를 불러 그리게 한 나의 초상을 기억하는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잃어버렸던 그 그림을 오늘 찾았더니. 그림을 보니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함께 공부하던 나의 젊은 시절이 생각난다네. 혼탁한 세상 편치만은 않지만 곧 개경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네. 영원한 벗, 익재'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나'는 고려의 문신 익재[역옹] 이제현(1287~1367)임을 알 수 있다.

이제현은 (편년체) 역사서인 사력을 저술하였다(1357, 고려 공민왕 6).

오답 해설>

② (성리학자의 입장에서 불교의 교리를 비판한)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한 인물은 삼봉 정도전(1342~1398)이다(1394, 조선 태조 3).

③ 9재 학당을 세워 유학 교육에 힘쓴 인물은 고려의 문신 최충(984~1068)이다(1055, 고려 문종 9).

④ (고려 명종에게)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한 인물은 최충현(1149~1219)이다(1196, 고려 명종 26).

⑤ (경북 안동 예안에서) 예안 향약을 시행하여 향촌 교화를 위해 노력한 인물은 퇴계 이황(1501~1570)이다(1556, 조선 명종 11).

18 - 조선 태조, 이성계

18.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북방에 4군과 6진을 설치하였다.
- ② 의종 복위를 도모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 ③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 ④ 여진을 정벌한 후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 ⑤ 좌·우별초와 신의군으로 삼별초를 조직하였다.

정답> ③

1/3에 '1380년 삼도 도순찰사 (가)이/가 이끄는 고려군이 전라도 황산에서 왜구를 크게 격퇴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2/3에는 '조선 선조 때 이를 기념하여 대첩비를 세웠지만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이 파괴하여 파편만 남게 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3/3에는 '그러나 탁본이 남아 있어 적장 아지발도를 죽인 (가)의 활약상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1335~1408)임을 알 수 있다.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위화도 회군, 1388(고려 우왕 14)].

오답 해설>

- ① 북방에 4군과 6진을 설치한 인물은 조선 세종이다[4군(1433, 조선 세종 15)/6진(1434, 조선 세종 16)]. 4군은 최윤덕(1376~1445), 6진은 김종서(1383~1453)에 의해 개척하였는데, 완성하기까지 대략 10여 년이 걸렸다.
- ② (고려의) 의종 복위를 도모하여 군사를 일으킨 인물은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1173)이다[김보당의 난(1173, 고려 명종 3)].
- ④ 여진을 정벌한 후 동북 9성을 축조한 인물은 윤관(?~1111)이다(1107, 고려 예종 2).
- ⑤ 좌·우별초와 신의군으로 삼별초를 조직한 인물은 최항(?~1257)이다(1254, 고종 41). 부친인 최우 때(집권 1219-1249)인 1232년(고종 19)에 좌별초와 우별초가 만들어졌으며, 최항 때(집권 1249-1257)에 만들어진 신의군이 합쳐져 조직되었다(삼별초, 1232~1273).

19 - 조선 세조 대의 모습(6조 직계제)

19.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왕에게 직계하는 이조 판서
- ② 임꺽정 무리를 토벌하는 관군
- ③ 동몽선습을 공부하는 서당 학생
- ④ 동의보감을 요청하는 중국 사신
- ⑤ 시장에 팔기 위해 담배를 재배하는 농민

정답> ①

왼쪽 말풍선에 '며칠 전 전하께서 과전을 혁파하고 직전을 설치하라는 명을 내리셨다고 하네'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이제 현직 관원들만 수조권을 지급받게 되겠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대화는 조선 세조 12년인 1466년에 단행된 직전법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세조는 원년인 1455년에 6조 직계제를 다시 시행하였다(태종 14년인 1414년에 처음 시행).

오답 해설>

- ② 임꺽정(?~1562)이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에서 '의적'으로 활약한 것은 조선 명종 대(재위 1545-1567)의 일이다. 임거정(林巨正) 또는 임거질정(林居叱正)이라고도 한다. 성호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그의 앞 시대의 홍길동, 뒷시대의 장길산과 함께 임꺽정을 조선의 3대 도적으로 꼽았다.
- ③ 동몽선습은 중종 때 박세무(1487~1554)가 저술한 아동용 초급 교재이다(1543, 중종 38).
- ④ 허준(1539~1615)이 동의보감 집필을 끝낸 것이 1610년이고, 내의원에서 이를 출간한 것은 광해군 5년인 1613년의 일이다.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⑤ 담배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재배하기 시작한 상품 작물이다.

20 - 조선 성종 대의 사실

20.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 ② 상평통보가 주조되었다.
- ③ 악학궤범이 간행되었다.
- ④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 ⑤ 초계문신제가 시행되었다.

정답> ③

'이곳은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창경궁은 (가)이/가 정희 왕후* 등 세 분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 수강궁을 수리하여 조성한 궁궐입니다. (가)은/는 경국대전 완성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조선의 제9대 왕인 성종(재위 1469-1494)임을 알 수 있다.

*정희 왕후 윤씨(1418~1483): 세조의 왕비로 아들 예종이 죽은 뒤에 손자 성종을 왕위에 앉히고 대왕대비로서 8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였다.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이 간행된 것은 성종 24년인 1493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된 것은 영조 재위 18년인 1742년의 일이다(성균관 앞 반수교 옆).
- ② 상평통보가 주조된 것은 숙종 4년인 1678년의 일이다(전국으로 유통).
- ④ 훈련도감이 설치된 것은 임진왜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선조 26)의 일이다.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 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계문신제가 시행된 것은 정조 5년인 1781년의 일이다.

21 - 기묘사화

21. 다음 주장이 공통으로 제기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

○ 중앙에서는 홍문관·육경·대간,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이 천거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시험을 치르면 많은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漢)에서 시행한 현량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 정국공신은 이미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허위가 많았습니다. 공신 기록을 유자광이 홀로 맡아서 이렇게까지 외람되었습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1494	1504	1545	1567	1623	1659
(가)	(나)	(다)	(라)	(마)	
연산군 즉위	갑자 사화	을사 사화	선조 즉위	인조 반정	기해 예송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정답> ②

위의 자료에 '중앙에서는 홍문관·육경·대간,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이 천거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시험을 치르면 많은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漢)에서 시행한 현량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정암 조광조(1482~1519)가 중종에게 건의한 현량과 시행과 관련된 사료임을 알 수 있다(1519, 중종 14).

*육경(六卿): 6조인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수장(首長)인 판서(判書)를 가리킨다.

아래의 자료에는 '정국공신**은 이미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허위가 많았습니다. 공신 기록을 유자광이 홀로 맡아서 이렇게까지 외람되었습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것 역시 정암 조광조가 중종에게 건의한 위훈(偽勳) 삭제 주장과 관련된 사료임을 알 수 있다(1519, 중종 14).

**정국공신: 중종반정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1506, 중종 원년)

위 두 사료에 나온 주장이 공통으로 제기된 시기는 중종 14년인 1519년이다. 기묘사화가 일어난 해로, 연표에서는 (나) 시기에 해당한다.

22 - 사간원

22.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그림은 중종 때 그려진 미원계회도(徽垣契會圖)입니다.
'미원'은 「가」의 별칭으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한 관청이었습니다. 소나무 아래에는 계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하단에는 참석자들의 관직, 성명, 본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①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였다.
- ②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 ③ 사헌부,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렸다.
- ④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 ⑤ 반역죄, 강상죄 등을 범한 중죄인을 다스렸다.

정답> ③

'이 그림은 중종 때 그려진 미원계회도(徽垣契會圖)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1540, 조선 중종 35). 이어 '미원은 (가)의 별칭으로 (국왕에 대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한 관청이었습니다. 소나무 아래에는 계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하단에는 참석자들의 관직, 성명, 본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조선의 3사 중 하나인 사간원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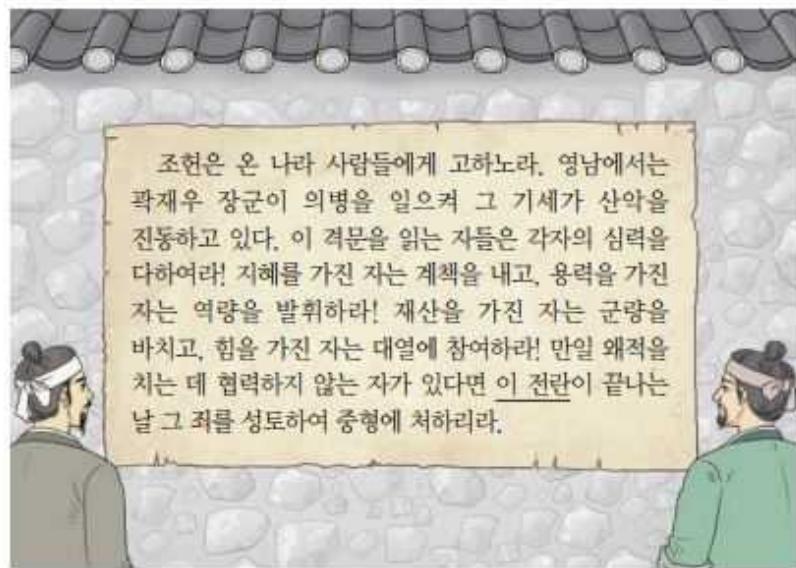
사간원은 사헌부,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렸다.

오답 해설>

- ① (왕의 비서 기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관장한 기구는 승정원이다.
- ②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한 기구는 한성부이다.
- ④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기구는 춘추관이다.
- ⑤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반역죄, 강상죄 등을 범한 중죄인을 다스린 기구는 의금부이다.

23 - 임진왜란 이후의 사실

23. 밑줄 그은 '이 전란'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유정이 회답 겸 쇄환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 ②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 ③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와 해동제국기를 저술하였다.
- ④ 조선 정부의 통제에 반발하여 삼포왜란이 일어났다.
- ⑤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 기구로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정답> ①

'조현은 온 나라 사람들에게 고하노라. 영남에서는 꽈재우 장군이 의병을 일으켜 그 기세가 산악을 진동하고 있다. 이 격문을 읽은 자들은 각자의 심력을 다하여라! 지혜를 가진 자는 계책을 내고, 용력을 가진 자는 역량을 발휘하라! 재산을 가진 자는 군량을 바치고, 힘을 가진 자는 대열에 참여하라! 만일 왜적을 치는 데 협력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 전란이 끝나는 날 그 죄를 성토하여 중형에 처하리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현'과 '꽈재우'라는 이름이 나온 것으로 보아 밑줄 그은 '이 전란'은 임진왜란을 가리킬 수 있다(1592~1598).
포로 송환을 위하여 사명대사 유정(1544~1610)을 회답 겸 쇄환사(回答兼刷還使)로 일본에 파견한 것은 조선 선조 37년인 1604년의 일이다. 일본에 건너가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1542~1616)를 만나 강화를 맺고 이듬해에 임진왜란 때 잡혀간 조선인 3,000여 명을 인솔하여 귀국하였다. 참고로 이후 단절된 국교를 회복하고자 1607년(선조 40) 정사(正使) 여우길 일행이 회답 겸 쇄환사(回答兼刷還使)로 일본에 파견된 적이 있다(이후에도 통신사로 명칭이 바뀌기 전에 두 차례 더 파견).

오답 해설>

- ② 나세, 심덕부 등이 (전라도)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한 것은 고려 우왕 6년인 1380년의 일이다(진포 대첩).
- ③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와 해동제국기를 저술한 것은 조선 성종 2년인 1471년의 일이다.
- ④ 조선 정부의 통제에 반발하여 삼포왜란이 일어난 것은 조선 중종 5년인 1510년의 일이다.
- ⑤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 기구로 비변사가 설치된 것도 조선 중종 5년인 1510년의 일이다.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 기구화되었다(1555, 명종 10).

24 - 조선 정조 대의 경제 모습

24. (가) 왕이 재위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 ②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 ③ 울산항,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 ④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이 제정되었다.
- ⑤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이 폐지되었다.

정답> ⑤

'이곳은 수원 화성 성역과 연계하여 축조된 축만제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은/는 축만제* 등의 수리 시설 축조와 둔전 경영을 통해 수원 화성의 수리, 장용영의 유지, 백성의 진휼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조선의 제22대 왕인 정조(재위 1776-1800)임을 알 수 있다.

*축만제(祝萬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조선 후기 화성의 서쪽 여기산 아래 축조한 저수지이다(1799, 정조 23).

정조 15년인 1791년에 신해통공이 시행되어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이 폐지되었다.

오답 해설>

- ①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된 것은 고려 성종 15년인 996년의 일이다(최초의 철전).
- ②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이 설치된 것은 신라 지증왕 10년인 509년의 일이다.
- ③ 울산항,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한 것은 (통일) 신라 시대의 일이다.
- ④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이 제정된 것은 조선 영조 26년인 1750년의 일이다.

25 - 서원

25. (가) 교육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A diagram illustrating the layout of a traditional Korean educational institution (Seowon). The layout is square-shaped with several buildings arranged around a central courtyard. Labels point to different parts of the complex:

- 사당 (Sadaeng)
- 강당 (Gangdang)
- 서재 (Sejae)
- 동재 (Dongjae)

- ① 전국의 모든 군현에 하나씩 설치되었다.
- ② 선현의 제사와 유학 교육을 담당하였다.
- ③ 전문 강좌인 7재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 ④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교관으로 파견하였다.
- ⑤ 소과에 합격한 생원, 진사에게 입학 자격이 부여되었다.

정답> ②

조사 보고서의 주제로 '조선의 교육 기관 (가)을/를 찾아서'가 제시되어 있다. 이어 개관으로 '중종 38년(1543) 풍기 군수 주세봉이 처음 건립하였다. 국왕으로부터 현판과 토지, 노비 등을 받기도 하였다. 흥선 대원군에 의해 정리되어 47곳이 남았는데, 이 중 대표적인 9곳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2019)'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건물 배치도에는 '사당, 강당, 서재, 동재'가 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서원임을 알 수 있다.

서원은 선현의 제사와 유학 교육을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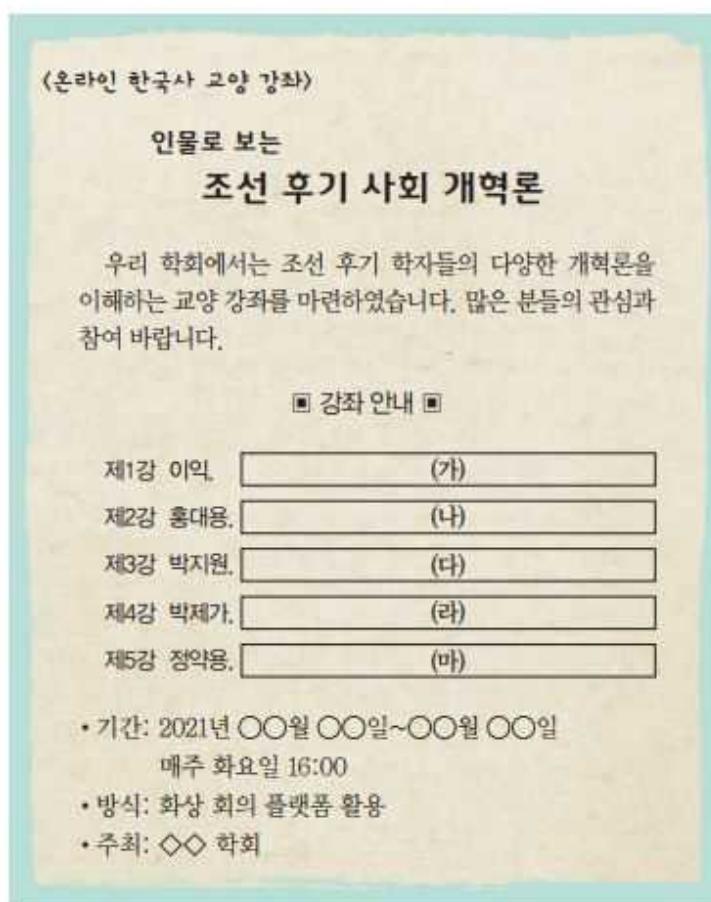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전국의 모든 군현에 하나씩 설치된 교육 기관은 조선의 향교이다.
- ③ 전문 강좌인 7재가 설치되어 운영된 교육 기관은 고려의 국자감이다.
- ④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교관으로 파견한 교육 기관은 조선의 향교이다.
- ⑤ 소과에 합격한 생원, 진사에게 입학 자격이 부여된 교육 기관은 조선의 성균관이다.

26 - 조선 후기 사회 개혁론

26.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가) –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다
- ② (나) – 목민심서에서 지방 행정의 개혁안을 제시하다
- ③ (다) – 열하일기에서 수레와 선박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 ④ (라) – 성호사설에서 사회 폐단을 여섯 가지 층으로 규정하다
- ⑤ (마) – 북학의에서 절약보다 적절한 소비를 권장하다

정답> ③

'인물로 보는 조선 후기 사회 개혁론'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 학회에서는 조선 후기 학자들의 다양한 개혁론을 이해하는 교양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강좌 안내로 제1강 이익, 제2강 홍대용, 제3강 박지원, 제4강 박제가, 제5강 정약용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연암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수레와 선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인물은 (성호 이익이 아니라) 담헌 홍대용(1731~1783)이다(1766, 영조 42).
- ② 목민심서에서 지방 행정의 개혁안을 제시한 인물은 (담헌 홍대용이 아니라) 다산 정약용(1762~1836)이다(1818, 순조 18).
- ③ 성호사설에서 사회 폐단을 여섯 가지 층으로 규정한 인물은 (초정 박제가가 아니라) 성호 이익(1681~1763)이다(1740년경).
- ④ 북학의에서 절약보다 적절한 소비를 권장한 인물은 (다산 정약용이 아니라) 초정 박제가(1750~1805)이다(1778, 정조 2).

27 - 청에 대한 조선의 정책

27. (가) 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 ② 별무반을 편성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 ③ 정기적으로 연행사를 보내 교류하였다.
- ④ 한성에 동평관을 설치하여 무역을 허용하였다.
- ⑤ 통신사를 파견하여 조선의 문물을 전파하였다.

정답> ③

원쪽 말풍선에 '모화관에 도착한 (가) 사신을 접대할 수 없다며 김만균이 사직소를 올렸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병자호란 때 조모가 강화도에서 순절한 것을 이유로 들었으나 나랏일이 먼저이니 사직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모화관'과 '병자호란'이라는 용어를 통해 주어진 '(가)'는 청(淸)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조선은 청에게 정기적으로 연행사를 보내 교류하였다.

오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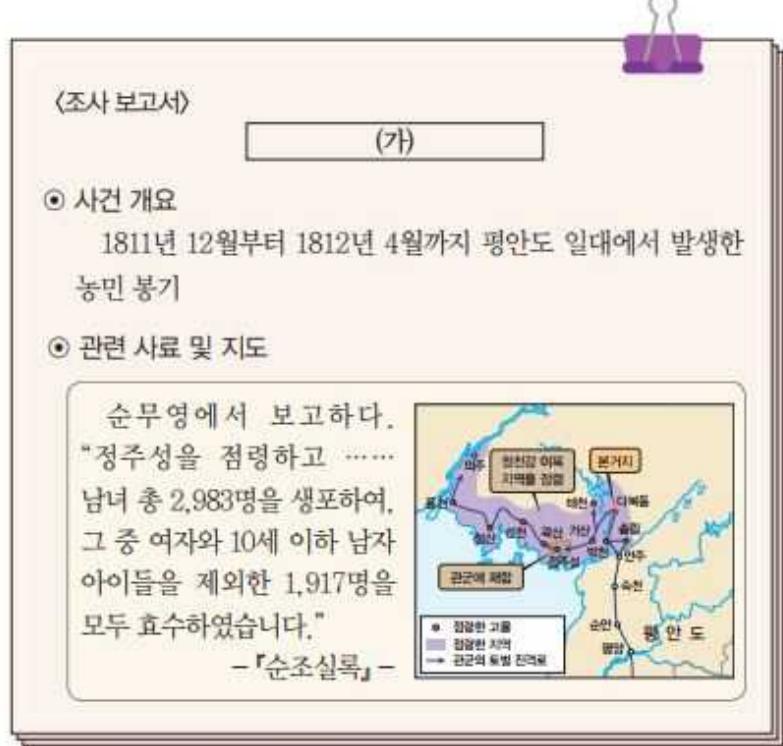
- ① (원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한 것은 고려 공민왕 5년인 1356년의 일이다.
- ②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의) 침입에 대비한 것은 고려 숙종 9년인 1104년의 일이다.
- ④ 한성에 동평관을 설치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한 것은 조선 태종 7년인 1407년의 일이다.
- ⑤ (일본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은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여 조선의 문물을 전파하였다.

*통신사는 조선 시대 전 기간에 걸쳐 총 20회(조선 전기 8회, 조선 후기 12회) 이루어졌다. 통신사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은 매우 높아서 통신사 일행이 방문한 곳마다 정치가나 관료들뿐만 아니라 일반 무사를 비롯한 문인, 목객, 서민들까지 통신사들에게 서화, 시문, 글씨 등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를 병풍, 회권(두루마리 그림), 판화 등의 형태로 만들어져 널리 유행되었다. 한편, 통신사들은 국내로 돌아와 일본에서 겪은 견문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28 - 홍경래의 난

28.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청의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 ② 척왜양창의를 기치로 내걸었다.
- ③ 선혜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다.
- ④ 사건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 ⑤ 세도 정치기의 수탈과 지역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정답> ⑤

조사 보고서의 사건 개요로 '1811년 12월부터 1812년 4월까지 평안도 일대에서 발생한 농민 봉기'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관련 사료인 순조실록에 '순무영에서 보고하다. 정주성을 점령하고 남녀 총 2,983명을 생포하여, 그 중 여자와 10세 이하 남자 아이들을 제외한 1,917명을 모두 효수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홍경래의 난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홍경래의 난은 세도 정치기의 수탈과 지역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오답 해설>

- ① 청의 군대에 의해 진압된 사건으로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이 있다(각 1882/1884).
- ② 척왜양창의를 기치로 내건 사건은 동학 농민 운동이다.
- ③ 선혜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한 사건은 임오군란이다 (1882.6).
- ④ 사건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것은 진주[임술] 농민 봉기이다(1862, 철종 13).

29 - 을미개혁

29. 다음 사건 이후 추진된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일본군의 엄호 속에 사복 차림의 일본인들이 건청궁으로 침입하였다. 그들은 왕과 왕후의 처소로 달려가 몇몇은 왕과 왕태자의 측근들을 붙잡았고, 다른 자들은 왕후의 침실로 향하였다. 폭도들이 달려들자 궁내부 대신은 왕후를 보호하기 위해 두 팔을 벌려 앞을 가로막아 섰다. 의녀가 나서서 손수건으로 죽은 왕후의 얼굴을 덮어 주었다.

- 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 ② 태양력을 시행하였다.
- ③ 육영 공원을 설립하였다.
- ④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였다.
- ⑤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정답> ②

'일본군의 엄호 속에 사복 차림의 일본인들이 건청궁으로 침입하였다. 그들은 왕과 왕후의 처소로 달려가 몇몇은 왕과 왕태자의 측근들을 붙잡았고, 다른 자들은 왕후의 침실로 향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폭도들이 달려들자 궁내부 대신은 왕후를 보호하기 위해 두 팔을 벌려 앞을 가로막아 섰다. 의녀가 나서서 손수건으로 죽은 왕후의 얼굴을 덮어 주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사건은 1895년 10월 8일(양력, 음력으로는 8월 20일)에 일어난 을미사변을 가리킬 수 있다(1895, 고종 32).

태양력을 시행한 것은 을미개혁 때의 일이다(1895.8~1896.2).

오답 해설>

- ① 과거제를 폐지한 것은 제1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 (1894.7~1894.12).
- ③ 육영 공원을 설립한 것은 고종 23년인 1886년 9월의 일이다.
- ④ 공사 노비법을 혁파한 것은 제1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
- ⑤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한 것은 고종 17년인 1880년 12월의 일이다.

30 - 병인박해[병인양요]

30. 다음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옳은 것은?

[2점]

양현수가 은밀히 정족산 전등사로 가서 주둔하였다. …… 산 위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북을 치고 나발을 불며 좌우에서 총을 쏘았다. 적장이 총에 맞아 말에서 떨어지고 서양인 10여 명이 죽었다. 달아나는 서양인들을 쫓아가니 그들은 동료의 시체를 옆에 끼고 급히 본진으로 도망갔다.

- ①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 ②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 ③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군대가 조선에 상륙하였다.
- ④ 병인박해로 천주교 선교사와 신자들이 처형되었다.
- ⑤ 김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책략이 국내에 유포되었다.

정답> ④

'양현수가 은밀히 정족산 전등사로 가서 주둔하였다. …… 산 위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북을 치고 나발을 불며 좌우에서 총을 쏘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적장이 총에 맞아 말에서 떨어지고 서양인 10여 명이 죽었다. 달아나는 서양인들을 쫓아가니 그들은 동료의 시체를 옆에 끼고 급히 본진으로 도망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양현수'라는 인물명과 '정족산'이라는 명칭을 통해 주어진 자료는 병인양요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1866, 고종 3).

병인양요가 일어난 것은 병인박해로 천주교 선교사와 신자들이 처형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극동함대사령관 로즈 제독(1812~1882)이 이를 빌미로 조선을 침략하였다(1866.10).

오답 해설>

- ①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진 것은 신미양요 때의 일이다(1871.6).
- ② (독일인) 오페르트(1832~1903)가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한 것은 고종 5년인 1868년 5월의 일이다.
- ③ 위안스카이(1859~1916)가 이끄는 군대가 조선에 상륙한 것은 임오군란 때로 고종 19년인 1882년 7월의 일이다.
- ⑤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간 김홍집(1842~1896)이 조선책략*을 가져와 고종에게 바친 것은 고종 17년인 1880년 9월의 일이다. 고종은 이를 필사하여 전국에 널리 읽히게 하였다.

*조선책략: 청의 주일 참사관 황준현(1848~1905)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청의 초대 주일 공사인 하여장(1838~1891)의 구상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었다. 당시 청은 이리(伊犁: 중국 위구르·신장 지역) 문제로 러시아와의 전쟁이 현실로 다가서자 일본과 손을 잡고 조선을 이용하여 러시아에 대항하고자 했다. 또 속국으로 여기는 조선에 미국과 일본 등을 끌어들이면 미국, 일본 등이 중국 편에서 함께 간섭해 러시아가 조선을 침략하는 걸 막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으로 황준현에게 조선책략을 작성하게 하였다.

31 - 갑신정변

31.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김옥균이 일본 공사 다케조에게 국왕의 호위를 위해 일본군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그는 호위를 요청하는 국왕의 친서가 있으면 투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친서는 박영효가 전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케조에는 조선에 주둔한 청군 1천 명이 공격해 들어와도 일본군 1개 중대면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 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 ②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 ③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 ④ 이만손이 주도하여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 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이 일어났다.

정답> ⑤

'김옥균이 일본 공사 다케조에게 국왕의 호위를 위해 일본군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그는 호위를 요청하는 국왕의 친서가 있으면 투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친서는 박영효가 전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다케조에는 조선에 주둔한 청군 1천 명이 공격해 들어와도 일본군 1개 중대면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 나타난 상황은 갑신정변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1884, 고종 21).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일어난 정변이 바로 갑신정변이다.

오답 해설>

- 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된 것은 고종 18년인 1881년 5월의 일이다.
- ② 김기수(1831~1894)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것은 고종 13년인 1876년 4월의 일이다(~6월).
- ③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지금의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에 속한 섬)를 공격한 것은 고종 12년인 1875년 9월의 일이다(운요호 사건).
- ④ 이만손(1811~1891)이 주도하여 영남만인소를 올린 것은 고종 18년인 1881년 2월의 일이다.

32 - 동학 농민 운동

32. (가) 시기에 전개된 동학 농민군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백산 봉기



전주성 점령

- ① 황토현에서 관군에 승리하였다.
- ②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연합하였다.
- ③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관군에 맞서 싸웠다.
- ④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 개혁안을 실천하였다.
- ⑤ 조병갑의 탐학에 저항하여 고부 관아를 습격하였다.

정답> ①

왼쪽 그림에는 '백산 봉기'가 나와 있고 오른쪽 그림에는 '전주성 점령'이 나와 있다. 동학 농민 운동(제1차 봉기)과 관련된 사건으로 동학 농민군이 [고부(지금의 전북 부안)] 백산에서 봉기한 것은 고종 31년인 1894년 3월 25일에서 26일간의 일(음력, 이하 동일)이며, 전주성을 점령한 것은 같은 해 4월 27일의 일이다(같은해 5월 8일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철수).

황토현에서 관군(전라도 감영군)에 승리한 것은 1894년 4월 6일에서 7일간의 일이다(황토현 전투, 참고로 4월 23일에는 황룡촌에서 중앙 경군 격퇴, 황룡촌 전투).

오답 해설>

- ② 남접과 북접이 (충남) 논산에서 연합한 것은 1894년 10월 9일의 일이다(제2차 봉기).
- ③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관군에 맞서 싸운 것은 1894년 11월 9일에서 12일간의 일이다(우금치 전투). 참고로 우금치는 지금의 충남 공주시 금학동과 주미동 사이에 있는 고개로, 당시 공주 남쪽을 지키는 관문이었다.
- ④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 개혁안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은 집강소 설치 합의가 이루어진 1894년 7월 6일부터이다(제2차 봉기로 중단).
- ⑤ 조병갑의 탐학에 저항하여 고부 관아를 습격한 것은 1894년 1월 10일의 일이다(고부 농민 봉기).

33 - 세한도

33. 다음 기사에 보도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신문
제스스호 2020년 ○○월 ○○일

국민의 품에 안긴 조선 후기 명화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이 소장자의 뜻에 따라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그동안 기탁 형태로 관리되었으나 온전히 국가에 귀속된 것이다. 이 작품은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 중일 때 사제의 의리를 변함없이 지킨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준 것으로, 시서화(詩書畫)의 일치를 추구하였던 조선 시대 문인화의 진수를 보여준다.



정답> ④

'국민의 품에 안긴 조선 후기 명화'라는 제목 아래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이 소장자의 뜻에 따라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그동안 기탁 형태로 관리되었으나 온전히 국가에 귀속된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작품은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 중일 때 사제의 의리를 변함없이 지킨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준 것으로, 시서화(詩書畫)의 일치를 추구하였던 조선 시대 문인화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말하는 문화유산은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세한도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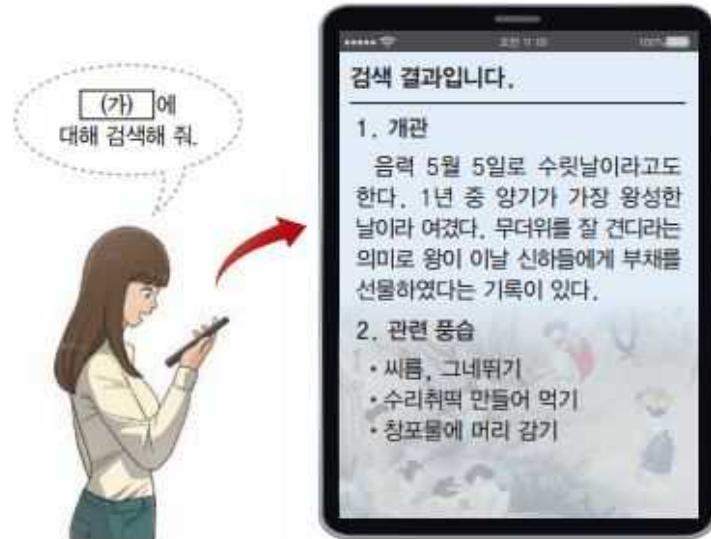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겸재 정선(1676~1756)의 인왕제색도이다. 인왕제색도는 '금강 전도'와 함께 정선의 대표작으로 꼽힌다(1751년작, 황혼에 접어든 일흔 여섯의 나이에 완성).
- ② 표암 강세황(1713~1791)의 영통동구도이다(송도기행첩 중의 한 점)(1757, 영조 33). 산과 바위에서 서양화 기법인 원근법과 명암법(음영법)이 반영되었다.
- ③ 조선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 대군(1418~1453)이 꿈에서 본 이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이다(1447, 세종 29).
- ⑤ 혜원 신윤복(1758~?)의 월하정인이다. 눈썹 같은 달이 떠 있는 한밤중에 어느 길모퉁이의 담장 옆에서 젊은 남녀가 은밀히 만나는 모습을 그렸다.

34 - 세시 풍속, 단오

34. (가)에 들어갈 세시 풍속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한식
- ② 백종
- ③ 추석
- ④ 단오
- ⑤ 정월 대보름

정답> ④

개관에 '음력 5월 5일로 수릿날이라고도 한다.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 여겼다. 무더위를 잘 견디라는 의미로 왕이 이날 신하들에게 부채를 선물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관련 풍속으로 '씨름, 그네뛰기, 수리취떡 만들어 먹기, 창포물에 머리 감기'가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세시 풍속, 단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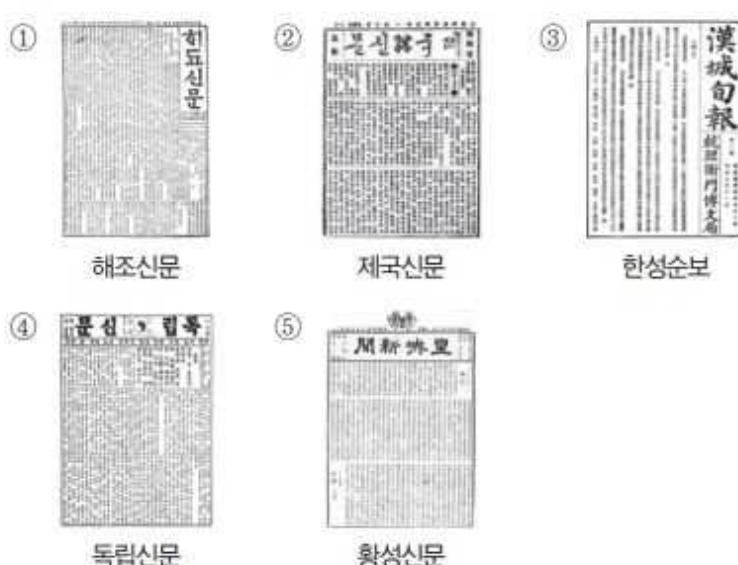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세시 풍속, 한식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양력으로는 대개 4월 5일경)에 지내는 명절이다.
- ② 세시 풍속, 백종은 매년 음력 7월 15일에 행하는 명절이다. 이른바 '보름 명절' 중 하나로 백종, 중원, 또는 망흔일, 우란분절이라고도 하였다.
- ③ 세시 풍속, 추석은 매년 음력 8월 15일에 지내는 명절이다. 한가위, 가배, 중추절 등으로도 불렸다.
- ⑤ 세시 풍속, 정월 대보름은 매년 음력 1월 15일에 지내는 명절이다. 쥐불놀이, 부럼 깨기, 오곡밥 먹기 등을 행하였다.

35 - 독립신문

35. (가)에 해당하는 신문으로 옳은 것은?

[1점]



정답> ④

'국가등록문화재 제506호'로, '1896년 4월 7일 서재필이 창간한 근대적 민간 신문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창간 당시에는 한글판 3면과 영어판 1면으로 발행되었다. 띠어쓰기를 시행하는 등 한글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자료 속 '(가)'에 해당하는 신문은 독립신문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해조신문이 창간된 것은 1908년 2월의 일이다.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리말로 발행된 최초의 일간 신문이다 (교포 신문).
- ② 제국신문이 창간된 것은 1898년 8월의 일이다.
- ③ 한성순보가 발행된 것은 1883년 10월의 일이다. 한성순보는 근대적 신문의 효시로, 박문국에서 발행하였다.
- ⑤ 황성신문이 발간된 것은 1898년 9월의 일이다.

36 - 지계 발급(광무개혁)

36.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전환국이 설치되었다.
- ② 혜상공국이 설립되었다.
- ③ 보빙사가 미국에 파견되었다.
- ④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 ⑤ 양전 사업이 실시되어 지계가 발급되었다.

정답> ⑤

왼쪽 말풍선에 '며칠 전 폐하께서 환구단에 나아가 황제로 즉위하셨다는 소식 들었는가?'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들었네. 어제는 국호를 대한으로 선포하셨다고 하더군'이라는 대답이 나와 있다.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고 대한 제국이 선포된 것은 1897년 10월의 일이다(1897.10.12).

(광무개혁 중 하나로) 양전 사업이 실시되어 지계가 발급된 것은 대한 제국 시기의 일이다(1899~1904).

오답 해설>

- ① 전환국이 설치된 것은 고종 20년인 1883년의 일이다(1883.7).
- ② (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해) 혜상공국이 설립된 것 역시 고종 20년인 1883년의 일이다(1883.8).
- ③ 보빙사가 미국에 파견된 것 역시 고종 20년인 1883년의 일이다(1883.7~1884.5).
- ④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된 것은 고종 19년인 1882년 8월의 일이다.

37 - 안중근 의사

37.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였다.
- ② 친일 인사인 스티븐스를 사살하였다.
- ③ 5적 처단을 위해 자신회를 조직하였다.
- ④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였다.
- ⑤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정답> ①

'이곳은 최근 다시 개관한 하얼빈의 (가) 기념관입니다'는 내용이나와 있다. 이어 '(가) 동상 위의 시계는 9시 30분에 멈춰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바로 그 시각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안중근 의사(1879~1910)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안중근 의사의 체포 후 중국의 뤼순 감옥에서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였다(1910.3). 동양 평화론은 동양 평화 실현을 위한 안중근 의사의 생각이 담긴 글로, 일제의 재빠른 사형 집행으로 말미암아 미완성되었다.

오답 해설>

- ②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한 인물은 장인환(1876~1930)이다(1908.3). 그 직전 전명운(1884~1947)도 스티븐스를 향해 권총을 쏘았으나 격발되지 않았다. 그러자 전명운은 스티븐스에게 달려가 그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스티븐스가 이에 맞서 전명운을 때리려고 하는 순간 장인환이 총을 쏘았다. 하지만 첫발은 전명운의 어깨를 맞혔고, 연달아 쏜 두 발이 스티븐스를 맞추었다(이틀 후 사망).
- ③ 5적 처단을 위해 자신회를 조직한 인물은 (대종교를 창시하기도 한) 나철(1863~1916)이다(1907.2). 그런데 거사 직전에 탄로가 나 나철은 신안군의 지도(智島)로 유배되었다.
- ④ (서울)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힌 인물은 이재명(1886~1910)이다(1909.12).
- ⑤ (조선 식산 은행과)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인물은 의열단원 나석주 의사(1892~1926)이다(1926.12).

38 - 신민회

38.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기>

- ㄱ. 태극 서관을 운영하였다.
- ㄴ.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 ㄷ. 이릉양행에 교통국을 설치하였다.
- ㄹ.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이것은 평양에 있던 대성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학교는 안창호, 양기탁 등이 조직한 (가)이/가 설립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신민회임을 알 수 있다(19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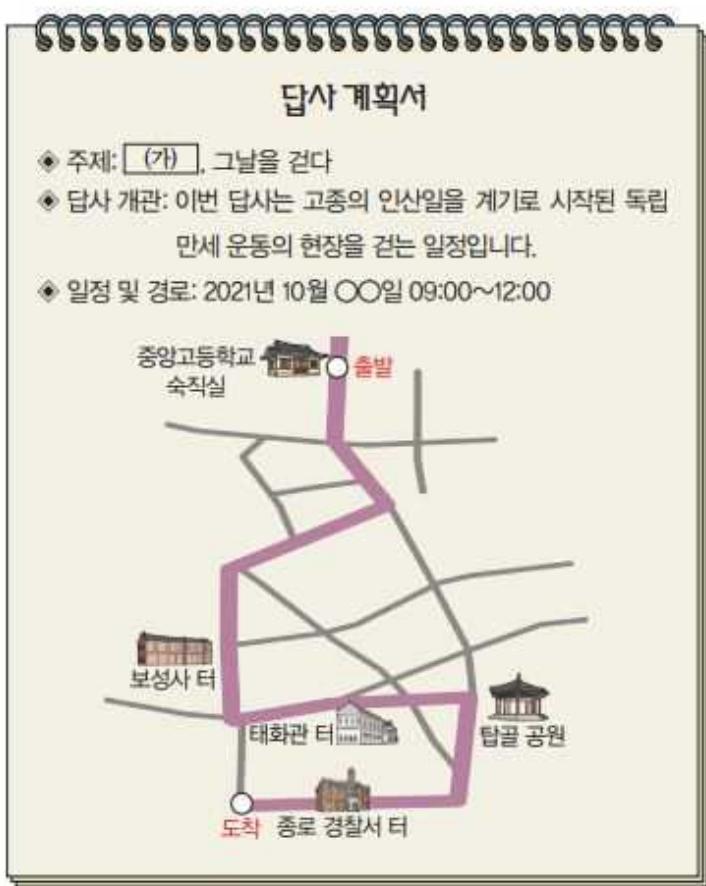
- ㄱ. (출판사인) 태극 서관을 운영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서울, 평양, 대구에 설립되었다(1908.5).
- ㄴ.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1911.9). 옳은 설명이다.
- ㄷ. 이릉양행에 교통국을 설치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1919.8).
- ㄹ.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틀린 설명이다. 신민회는 공화정체를 추구하였다.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한 것은 독립 협회가 주도한 1898년 10월 관민 공동회 때의 일이다(헌의 6조).

이상으로 <보기>에서 신민회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과 ㄴ'이다.

39 - 3·1 운동

39. (가)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 ②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 ③ 민족 대표 33인 명의의 독립 선언서가 발표되었다.
- ④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⑤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정답> ③

'답사 계획서'의 주제로 '(가), 그날을 걷다'가 제시되어 있다. 이어 답사 개관에 '이번 답사는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시작된 독립 만세 운동의 현장을 걷는 일정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주어진 지도에는 중앙고등학교 숙직실에서 출발하여 보성사 터, 태화관 터, 탑골 공원, 종로 경찰서 터가 차례로 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1919년 3월에 일어난 '3·1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3·1 운동에서 민족 대표 33인 명의의 독립 선언서가 발표되었다(태화관).

오답 해설>

- ①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된 민족 운동은 국채 보상 운동이다(1907.2~1908.7).
- ② 러시아의 절영도(지금의 부산 영도) 조차 요구를 저지한 민족 운동은 독립 협회의 자주 국권 운동이다(1898.2). 이후 대한 제국의 비자주적 외교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만민 공동회로 발전하였다(1898.3~12).
- ④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된 민족 운동은 국채 보상 운동이다.
- ⑤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 민족 운동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1929.11~1930.3).

40 - 1920년대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40.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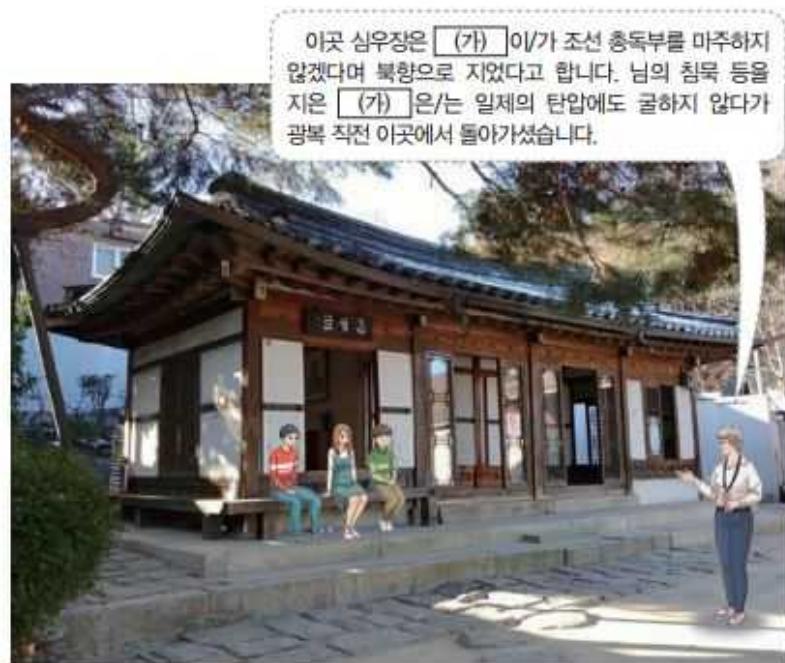


- ① (가) - (나) - (다)
③ (나) - (가) - (다)
⑤ (다) - (나) - (가)

- ② (가) - (다) - (나)
④ (나) - (다) - (가)

41 - 만해 한용운

41.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하였다.
② 유교 개혁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을 제창하였다.
③ 월간지 유심을 발간하여 불교 개혁 운동에 힘썼다.
④ 진단 학회를 설립하여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켰다.
⑤ 독사신론을 저술하여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답> ④

'1920년대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이라는 제목 아래 (가) 말풍선에는 '창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 3부가 성립되었습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만주에서 3부가 조직된 것은 1924년 6월에서 1925년 3월 사이이다(1924년 6월 창의부, 1924년 11월 정의부, 1925년 3월 신민부 조직). 이어 (나) 말풍선에는 '대한 독립군 등이 봉오동으로 일본군을 유인하여 크게 무찔렀습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봉오동 전투를 가리키는 것으로, 1920년 6월의 일이다 (1920.6.7). 마지막으로 (다) 말풍선에는 '북로 군정서 등이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청산리 대첩을 가리키는 것으로, 1920년 10월의 일이다 (1920.10.21~26).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다)-(가)'가 된다.

정답> ③

'이곳 심우장은 (가)이/가 조선 총독부를 마주하지 않겠다며 북향으로 지었다고 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님의 침묵 등을 지은 (가)은/는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다가 광복 직전 이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독립운동가이자 승려이자, 시인인 만해 한용운 (1879~1944)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한용운이 1933년부터 거주한 집인 심우장은 사적 제550호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해 있다. 한용운은 월간지 유심을 발간하여 불교 개혁 운동에 힘썼다 (1918.9~12).

오답 해설>

- ①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사업이 추진된 것은 조선어 학회이다 (1931년 11월 조선어 연구회에서 명칭 변경). 1929년부터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시작하였는데 1942년 10월 일제에 의해 조작된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말미암아 편찬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다. 원고는 일제에 압수되었다가,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이후 1947년에 조선말 큰사전 2권이 한글 학회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간행되었으며, 3권부터는 '큰사전'이라는 이름으로 1957년까지 총 6권이 간행되었다.
- ② 유교 개혁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을 제창한 인물은 백암 박은식(1859~1925)이다(1909.3).
- ④ 진단 학회를 설립하여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진단 학보 발행) 시킨 대표적인 인물로는 두계 이병도(1896~1989)를 들 수 있다 (1934.5). 이 외 한뫼 이윤재(1888~1943), 일석 이희승 (1896~1989), 남창 손진태(1900~?), 도남 조윤제(1904~1976) 등이 진단 학회의 실무를 맡아 보았다(1934.5).
- ⑤ 독사신론을 저술하여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은 단재 신채호(1880~1936)이다(1908.8~12). 참고로 독사신론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한 미완성 논설이다.

42 - 일제 강점기 말의 모습

42.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사진 속 만삭의 임산부가 바로 저입니다. 일제는 중일 전쟁 이후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많은 여성들 전쟁터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았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연합군에 의해 구출되었지만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여성도 참 많았지요.



- ① 태형을 집행하는 현병 경찰
- ② 원산 총파업에 동참하는 노동자
- ③ 회사령을 공포하는 총독부 관리
- ④ 신사 참배에 강제 동원되는 학생
- ⑤ 암태도 소작 쟁의에 참여하는 농민

정답> ④

'고(故) 박영심 할머니(1921~2006) 생전 인터뷰'라는 제목 아래 '사진 속 만삭의 임산부가 바로 저입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일제는 중일 전쟁 이후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많은 여성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았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연합군에 의해 구출되었지만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여성도 참 많았지요'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시기'는 일제 강점기 말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일제 강점기 말에 일제는 신사 참배를 (본격적으로) 강요하였다 (1938.2). 따라서 '신사 참배에 강제 동원하는 학생'을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조선 태형령이 시행된 것은 1912년 4월의 일이다(~1920.3).
- ② 원산 총파업이 일어난 것은 1929년 1월의 일이다 (1929.1.13~4.6).
- ③ (허가제) 회사령이 공포된 것은 1910년 12월의 일이다(1920년 4월에 신고제로 바뀜).
- ⑤ 암태도 소작 쟁의가 일어난 것은 1923년 8월의 일이다 (~1924.8).

43 - 근우회

43.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달의 독립운동가】

민족 독립과 여성 해방을 꿈꾼

박차정(朴次貞)

(1910~1944)



부산 동래 출신. 1927년 신간회의 자매 단체로 결성된 (가)의 중앙 집행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동조하여 서울에서 시위를 주도하였다가 불구속으로 나온 후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1938년 조선 의용대의 부녀 복무 단장이 되어 남편 김원봉과 함께 무장 투쟁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듬해 춘천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후유증으로 순국하였다.

- ① 상하이에서 대동 단결 선언을 발표하였다.
- ②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 ③ 여성 교육을 위해 배화 학당을 설립하였다.
- ④ 조선 여성의 단결과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 ⑤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간하여 소년 운동을 주도하였다.

정답> ④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민족 독립과 여성 해방을 꿈꾼 박차정(1910~1944)'이 제시되어 있다. 이어 '부산 동래 출신으로 1927년 신간회의 자매 단체로 결성된 (가)의 중앙 집행 위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동조하여 서울에서 시위를 주도하였다가 불구속으로 나온 후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1938년 조선 의용대의 부녀 복무 단장이 되어 남편 김원봉과 함께 무장 투쟁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듬해 춘천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후유증으로 순국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근우회임을 알 수 있다(1927.5).

근우회는 조선 여성의 단결과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한 여성 운동 단체이다.

오답 해설>

- ① 중국 상하이에서 대동 단결 선언이 발표된 것은 1917년 7월의 일이다. 신규식, 신채호, 조소앙 등 14인의 명의로 발표된 선언문에는 '주권 재민 사상'이 담겨 있다["융희 황제가 삼보(三寶)*를 포기한 경술년 8월 29일은, 우리 동지가 이를 계승한 날이니 황제권 소멸의 때가 즉 민권 발생의 때요, 구한국 최후의 날은 즉 신한국 최초의 날이니"]. 대동단결 선언문은 2015년 12월 대한민국 국가등록문화재 제652호로 지정되었다

*삼보(三寶) : 토지, 인민, 정치

- ②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한 단체는 (대한)보안회이다 (1904.7). 성암 송수만(1857~?), 심상진(?~?) 등의 주도로 설립되었고, 결국 일본의 요구를 좌절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 ③ (기독교 전파와) 여성 교육을 위해 배화 학당을 설립한 단체는 미국의 남감리교이다(1898.10). 캠벨(Josephine P. Campbell) 선교사 (1852~1920)가 한성 인달방 고간동(지금의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교사를 마련하고, 캐롤라이나 학당으로 명명하였다(1910년 4월에 배화 학당으로 교명 개칭).

- ⑤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간하여 소년 운동을 주도한 단체는 천도교이다(천도교 소년회, 1921.5). 천도교에서 잡지 어린이를 발간한 것은 1923년 3월이다.

44 - 러시아 연해주의 민족 운동

44.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저는 지금 전로 한족회 중앙 총회가 개최된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지역에 거주한 한인들의 대표자 회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에 대해 올려주세요.



- ①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 강습소를 세웠어요.
- ② 권업회를 조직하여 권업신문을 발행하였어요.
- ③ 숭무 학교를 설립하여 무장 투쟁을 준비하였어요.
- ④ 한인 비행 학교를 세워 독립군 비행사를 육성하였어요.
- ⑤ 대일 항전을 준비하기 위해 조선 독립 동맹을 결성하였어요.

정답> ②

'저는 지금 전로 한족회 중앙 총회가 개최된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지역에 거주한 한인들의 대표자 회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에 대해 올려주세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대화창에는 '대한 국민 의회를 결성하였다'는 점과 '대한 광복군 정부를 세웠다'는 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 운동이 나와야 함을 알 수 있다.

권업회를 조직하여 (기관지이자 항일 신문인) 권업신문을 발행한 지역은 연해주이다(각 1911.12/1912.4).

오답 해설>

- ①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 강습소를 세운 지역은 서간도이다 (1911.6). 신흥 강습소는 이후 1919년 5월에 신흥 무관 학교로 개명하였다.
- ③ 숭무 학교를 설립하여 무장 투쟁을 준비한 지역은 멕시코 유카탄반도의 메리다 지역이다(1910.11). 지역회 한인 회장 이근영 (?~?)의 주도로 수십 명의 한인 청년을 모아 사관(士官)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 ④ 한인 비행 학교를 세워 독립군 비행사를 육성한 지역은 미국이다(1920.2). 미국 본토 캘리포니아주의 소도시 월로우스 (Willows)에 세워졌으며 일명 '월로우스 비행 학교'로 불리기도 하였다. 참고로 한인 비행(기) 학교는 동년 7월 곽림대에 의해 비행가양성사(비행사양성소) 설립으로 이어졌다.
- ⑤ 대일 항전을 준비하기 위해 조선 독립 동맹을 결성한 지역은 중국 화북 지역이다(1942.7).

45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

45.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접견 기록

▣ 날짜 및 장소

1943년 7월 26일, 중국 군사 위원회 접견실

▣ 참석 인물

- (가):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소앙 등
- 중국: 위원장 장제스 등

▣ 주요 내용

- 장제스: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실현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혁명 동지들이 진심으로 단결하고 협조하여 함께 노력한다면 광복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김구·조소앙: 우리의 독립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국이 지지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 ①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 ②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간행하였다.
- ③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 ④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였다.
- ⑤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 강령을 선포하였다.

정답> ⑤

'접견 기록'이라는 제목 아래 날짜 및 장소로 '1943년 7월 26일, 중국 군사 위원회 접견실'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참석 인물로 '(가)의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소앙 등과 중국의 위원장 장제스 등'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내용으로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실현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혁명 동지들이 진심으로 단결하고 협조하여 함께 노력한다면 광복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는 장제스의 말과 '우리의 독립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국이 지지해 주기를 희망합니다'는 김구·조소앙의 말이 차례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임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41년 11월에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 강령을 선포한 바 있다(1941.11.28).

오답 해설>

- ①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한 단체는 좌우 합작 위원회이다 (1946.10.7).
- ②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간행한 단체는 천도교이다(1920년 개벽사 설립, 개벽은 1920년 6월, 신여성은 1923년 9월에 발행).
- ③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단체는 의열단이다 (1923.1).
- ④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한 단체는 조선어 학회이다 (1933.10). 조선어 학회는 또 조선어 표준어 사정위원회를 두고 1935년부터 표준어를 사정하여 이듬해인 1936년 10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간행하였다.

46 -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실

46.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양성 평등의 실현을 위해 호주제를 폐지하였다.
- ② 교육의 지표를 제시한 국민 교육 현장을 선포하였다.
- ③ 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시행하였다.
- ④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였다.
- ⑤ 언론의 통폐합이 단행되고 언론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정답> ②

'오늘 대전에서는 향토 예비군 창설식이 열렸습니다'는 내용이나와 있다. 이어 '1월 21일 북한 무장 공비의 청와대 습격 시도 사건을 계기로 자주적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향토 예비군 창설식이 열린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8년 4월의 일이다(1968.4.1).

교육의 지표를 제시한 국민 교육 현장이 선포된 것은 1968년 12월의 일이다(1968.12.5).

오답 해설>

- ①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호주제가 폐지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8년 1월의 일이다(2008.1.1).
- ③ 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시행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9월의 일이다(2008.9.21)(2008년 3월 21일 제정).
- ④ 공직자 윤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제도화]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6월의 일이다(1993.6.11). 이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심사권을 부여하였으며 처벌 규정도 강화하는 등 현행 공직 윤리 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참고로 공직자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1년 12월의 일이다(시행은 1983년 1월).
- ⑤ 언론의 통폐합이 단행되고 언론 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0년 12월의 일이다(~1987.11).

47 - 반민족 행위 처벌법

47.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한국사 특강

우리 연구회에서는 '제헌 헌법으로 출범한 제○공화국'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을 위한 한국사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특강 내용 ▣

제1강 (가)
제2강 농지 개혁법의 제정 과정
제3강 정전 협정의 체결

●기간: 2021년 10월 ○○일~○○일
●시간: 매주 목요일 15:00~17:00
●장소: □□ 연구회

- ① 삼청 교육대의 설치
- ② 새마을 운동의 추진
- ③ 한일 기본 조약의 비준
- ④ 지방 자치제의 전면 실시
- 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제정

정답> ⑤

'한국사 특강'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 연구회에서는 제헌 헌법으로 출범한 제○공화국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을 위한 한국사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특강 내용으로 제1강은 (가), 제2강은 농지 개혁법의 제정 과정, 제3강은 정전 협정의 체결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제○공화국은 제1공화국*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제1공화국: 1948년 8월 정부 수립부터 1960년 4·19 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까지 존속하였던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 헌정 체제를 가리킨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1948년 9월의 일이다(1948.9.22).

오답 해설>

- ① 삼청 교육대가 설치된 것은 1980년 8월의 일이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국보위가 '사회 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군부대 내에 설치하였다. 1980년 8월 4일 '사회악 일소 특별 조치'와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에 이어 제시된 자료의 '삼청 5호 계획'의 이름 하에 진행되었다. 명분은 폭력 범과 사회 풍토 문란 사범을 소탕하기 위함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무자비한 인권 탄압이 행해졌다. 폐지되는 1981년 1월 25일까지 총 6만 755명이 체포되었고, 보안사령부, 중앙정보부, 헌병대 요원과 검찰, 경찰서, 지역 정화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A·B·C·D 4 등급으로 분류되어 처벌받았다(A급 3,252명은 군법 회의에 회부, B·C급 3만 9,786명은 4주 교육 후 6개월 복역, 다시 2주 교육 후 훈계 방면, D급 1만 7,771명은 경찰서에서 훈계 방면).
- ② 새마을 운동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0년 4월부터이다.

- ③ 한일 기본 조약이 비준된 것 역시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5년 6월의 일이다(1965.6.22, 같은 해 12월 18일 발효).
- ④ 지방 자치제가 전면 실시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6월의 일이다(1995년 6월 27일에 5·16 군사 정변 이후 처음으로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실시).

48 - 6월 민주 항쟁

48. (가), (나) 헌법이 제정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제39조 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제40조 ① 대통령 선거인단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 선거인으로 구성한다.

제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나)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기반으로 군정이 실시되었다.
- ② 조봉암이 혁신 세력을 규합하여 진보당을 창당하였다.
- ③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④ 유신 체제에 저항하여 부산, 마산 등지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 ⑤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6·10 국민 대회가 개최되었다.

정답> ⑤

(가)의 제39조로 '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40조에는 '① 대통령 선거인단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 선거인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제45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대통령 선거인단'('대통령 간선제')임을 알 수 있음)과 대통령의 임기가 '7년'이라는 점에서 주어진 (가) 헌법은 제8차 개헌 시의 헌법임을 알 수 있다 (1980.10.27. 공포).

(나)의 제67조로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제70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다는 점('대통령 직선제')임을 알 수 있음)과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라는 점에서 주어진 (나) 헌법은 제9차 개헌 시의 헌법임을 알 수 있다(1987.10.29. 공포).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6·10 국민 대회가 개최된 것은 1987년 6월의 일이다(6월 민주 항쟁).

오답 해설>

- ① 국가 재건 최고 회의가 출범한 것은 1961년 5·16 군사 정변 직후인 1961년 5월 19일의 일이다(제3공화국이 출범하는 1963년 12월 17일까지 존속).
- ② 조봉암이 혁신 세력을 규합하여 진보당을 창당한 것은 1956년 11월의 일이다(1956.11.10).
- ③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1960년 4월의 일이다(4·19 혁명).
- ④ 유신 체제에 저항하여 부산, 마산 등지에서 시위가 일어난 것은 1979년 10월의 일이다(부마 민주 항쟁).

49 - 김영삼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49.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점]

헌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반포합니다. 금융 실명제 없이는 건강한 민주주의도,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도 꽂피울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 실명제는 '신한국'의 건설을 위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제도 개혁입니다.

- ① 경부 고속도로를 준공하였다.
- ②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 ③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④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 ⑤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해 신한 공사가 설립되었다.

정답> ③

'헌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반포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금융 실명제 없이는 건강한 민주주의도,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도 꽂피울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 실명제는 신한국의 건설을 위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제도 개혁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자료(담화문)는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8월에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된 사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1993.8.12).

(우리나라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한 것 역시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6년 12월의 일이다(1996.12.12).

오답 해설>

- ① 경부 고속도로가 준공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0년 7월의 일이다.
- ②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2년 1월의 일이다(~1966).
- ④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6월의 일이다. 참고로 협정이 발효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 3월이다.
- ⑤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해 신한 공사가 설립된 것은 1946년 3월의 일이다(~1948.3).

50 - 노태우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

50.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남북 정상 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 ②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 ③ 개성 공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④ 남북 조절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 ⑤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을 최초로 실현하였다.

정답> ②

'나는 3년 전 이 자리에서 서울 올림픽의 감명을 전했습니다. …… 며칠 전 남북한이 다른 의석으로 유엔에 가입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통일을 위해 거쳐야 할 중간 단계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남북한의 두 의석이 하나로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9월의 일이다(1991.9.18)(노태우 정부 시기, 1988.2~1993.2).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 채택된 것 역시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12월의 일이다(1991.12.31).

오답 해설>

- ① 남북 정상 회담이 평양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6월의 일이다(2000.6.13~15).
- ③ 개성 공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 역시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2년 8월의 일이다. (제1차)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북 간 교류가 활발해져 2000년 8월에 한국의 현대아산(주)과 북한 사이에 공업지구 건설이 합의되었고, 2002년 8월에 이르러 개성 공단 착공 추진이 최종 합의되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6월에 개성 공단 착공식이 거행되었다.
- ④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조절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7월의 일이다(1972.7.4, 7·4 남북 공동 성명).
- ⑤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을 최초로 실현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9월의 일이다(1985.9.20.~9.23). 당시 남북 각 50명 규모였으며, 9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때 예술 공연단도 교환되어 공연하였다.

- 이 상 -